

“영기문 표현 禪 가르침과 맞닿았다”



강우방 교수, 부산 안국선원 학술대회서 주장

이 발표했다. 강우방 교수(이화여대·사진)는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공동대표 강동근·김용환)가 4월 28일 부산 안국선원(선원장 수불)에서 개최한 제3회 학술대회에서 '선(禪)이 한국 미술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그간 자신이 제시해 온 '영기화생(靈氣化生)' 이론을 통해 선종의 유입 이후 나타나는 조형미술의 변화를 살펴봤다. 강 교수가 주장하는 영기화생이란 우주의 신령한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시대 패불에 이르러 더욱 심화된다. 강 교수는 "영기문이 폭발적으로 꽃피운 조선시대 패불의 역동적인 영기 표현은 곧 선종의 산물이다"고 강조했다.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건축이나 그림, 공예에 영기문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근원적이기 때문"이라는 강 교수는 "이것은 본성을 회복하는 선의 가르침과 맞닿아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 불교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강석근 교수(동국대)가 '한국 문화와 선시(禪詩)'란 발제를 통해 선시가 고려가요와 고려한시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고, 김봉근 교수(동의대)는 '차(茶)와 선종의 만남' 발표에서 백장정규(百丈淸規)와 깎다거(峽茶去) 후두로 차와 선종의 관계를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자유발표에서는 구자상 교수(동아대)가 '불전에 나타난 성취별적 교설의 분석'을, 이태호 연구원(한국과정사상연구소)이 '불교와 화이트헤드의 존재론'을, 김현남 교수(원광대)가 '북장 의식에 나타난 만다라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글=여수령 기자·사진=하성미 기자

禪宗 보급은 한국문화사 큰 사건 구름 당초 등 문양 영기의 구상화 패불의 역동적 영기 선종의 산물

기운인 '기(氣)'를 '영(靈)'으로 보고, 조형미술 전반에서 이 '영'을 형상화하려는 시도와 일련의 미술양식을 일컫는 말이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해 불상과 부도, 불화에 등장하는 구름, 덩굴, 당초, 불꽃, 웅문양은 이러한 '영기'를 구상화해 표현한 것이라고 강 교수는 주장한다.

강 교수는 8세기 중엽 조성된 '여래형 비로자나불'을 살펴봤다. 비로자나불의 경우 선종사찰이 창건되기 시작하는 9세기 무렵부터 조성되었는데, 구산선문의 주불이 된 비로자나불의 출현과 함께 대좌 형식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여래나 보살의 도상을 보여주는 수준에서 벗어나 대좌에 영기에서 화생하는 용이나 사자를 표현함으로써 비로자나불의 '영기화생'을

“선종(禪宗)의 보급은 한국 문화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며, 불교사상의 변화는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8세기 무렵, 우리나라에 선종이 전래된 후 불교미술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논문

“할아버지 보다 나이 많아요”

개원 80주년 기념행사 개최한 '마산 대자유치원'

현재까지 7천여 명 졸업

“우리 유치원은 할아버지 할머니 보다 나이가 많아요.”

통도사 마산중앙포교당 정법사 부설 대자유치원(원장 권명숙)은 지난 4월 28일 개원 80주년을 맞아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원아 220명과 60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가한 이번 기념행사에서 대자유치원은 준비된 영상자료를 통해 8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개원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교육방향 등을 짚어봤다. 그 후 준비된 다도시연, 합창 및 재원생 무용 등으로 활기찬 무대를 선사했다.

현재까지 총 7226명이 졸업한 대자유치원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민족교육 도량으로서 1927년 4월 5일에 마산사람배달 유치원으로 개원했다. 1940년 대자유치원으로

로 개명 후 지속적인 학급 증설과 발전으로 1984년 12월 21일 문교부 우수 유치원 표창을 받았다. 1995년 7월 12일 신축 교사를 준공한 뒤 현재 220명의 원아가 취원하고 있다.

권명숙 원장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유치원 교육이 차단된 상태였기에 오히려 민족교육의 계승이 가능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교육하며 민족성 원형 보존에 노력한 개원 당시의 초발심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불교가 보는 '트랜스젠더'

불교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바라볼까? 한국불교연구원은 '불교와 젠더(gender)'란 주제로 5월 11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2007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트랜스젠더'에 관한 토론도 이뤄질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황순일 교수(동국대)가 '남아시아 불교와 젠더'를, 이원형 교수(원광대)가 '티베트 불교와 젠더'를, 신규탁 교수(연세대)가 '동아시아 불교와 젠더'를 각각 살펴본다. '불교는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보는가'는 안옥선 교수(순천대)가, '가부장제도의 불교의 젠더'는 고영섭 교수(동국대)가 발표한다. 이 밖에도 마성 스님(경주 동국대 강사)은 '불교의 여성성불론'을 짚어보고 이태승 교수(위덕대)는 '보살 정체성 안에서의 젠더'를 주제로 발표한다. 여수령 기자

분황사 석탑 돌사자 수리과정 공개

3D 스캔 도상 후 조각 도드락다듬 복원

경주 분황사석탑(사적 제30호) 석사자상의 수리 복원공정이 공개됐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욱)는 <경연고고(慶源考古)> 제12호에 돌사자상의 수리와 복원 과정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분황사석탑 돌사자상은 지난 2005년 봄 원형복원이 제안된 후 2006년 12월부터 복원 작업이 이뤄졌다. 결실된 돌사자상의 다리 부분은 외관이 가장 비슷한 동남관 사자의 다리를 모델로 실측도와 3D 스캔 도상을 작성한 후 동일 석재로 조각하고 예폭시수자를 이용해 접착한 뒤 도드락다듬을 해 복원했다. 도드락다듬은 격자무늬가 있는 도드락망치를 이용해 석재표면을 다듬는 방법



을 말한다. 분황사석탑 돌사자는 원래 기단 위에 6구가 있었으나 이 중 규모가 작은 2구는 일제강점기에 경주박물관으로 이전됐고, 현재 4구가 기단부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다. 사자상은 높이 1175cm이며 재질은 화강암이다.
여수령 기자

순천 파라미타청소년협회 19일 전남지역 최초 발족

전남지역에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처음으로 발족한다.

(사)순천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5월 19일 오전 11시 동천고수부지에서 발족식을 갖는다. 순천파라미타협회는 초대 지회장을 맡는 김재기(두진건설 대표) 불자의 노력으로 창립하게 됐다. 김씨는 도서출판 철염골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으로 순천지역 어린이 청소년 포교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포교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또 이날 발족식과 함께 순천지역 초·중·고생 1500여명이 참가하는 동천예술제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참가청소년들은 동천주변 환경정화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 홈페이지 통해 서비스

북한의 국보로 지정된 불교문화재를 사진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가 최근 발간한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유적>에는 북한의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 193건이 담겨 있다.

이 중에는 '정무사 팔각철축석탑(184호)'과 '삼성사(189호)' 등 불교문화재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번 도록은 200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종합학술조사연구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으로, 관련 유적과 유물별로 사진과 그에 대한 해설이 담겨 있다.

발간 도록 원문은 조만간 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에 서비스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어린이 문화예술탐방 실시

평창 월정사 문수청소년회(총재 정념)는 5월 6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어린이 문화예술탐방을 실시한다.

어린이들의 문화적 감성과 품성을 함양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문화예술탐방에서는 서울 뮤지컬단의 '달려라 하니'를 관람한다. 초·중·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참가비는 1만5000원. (033)335-1318
남동우 기자

선리연구원 2차 월례세미나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5월 12일 오후 3시 서울 안국동 연구원 강당에서 2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김현남 교

수는 '법계의 전승과 지역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법계전승의 개관과 경사도·전라도·경기지방의 법계를 중심으로 문화적인 배경과 특징을 짚어본다. 김종진 교수는 '근대불교시가(詩歌)의 전환기적 양상과 의미' 주제발표를 한다. 여수령 기자

성명서

다 음

각 교구본사 주지는 산중총회에서 선출하여 총무원에 품신하면 총무원장은 중헌 제91조 의하여 승적, 승랍, 정계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종단의 기본법인 중헌규정이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은 중헌중법을 무시하고 차기 총무원장 선거 등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제주불교의 자치권을 침탈하여 장악함으로써 현 종단 집권층의 장기 집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총무원은 법이야 어찌되었든 자기들의 결집만 하면 된다는 식의 독단적 결정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는 불교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단초가 된다.

특히 총무원은 제주불교의 발전을 저해하고 파행을 초래하기 위한 술수로 타시도 소재 제21교구 백암사의 재적승인 시몽스님을 그 하수인으로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이다.

총무원은 제23교구본사인 관음사 성역화 사업 등 운영에 대하여 한문의 예산지원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권력 장악에만 혈안 되어 관음사를 빼앗으려 하는 것은 제주불자는 물론 전 도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제주불교 교권수호와 청정승가외호를 위하여 총무원의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사부대중에게 고발하며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제23교구본사 관음사를 사수할 것을 결의하고 제주도민과 함께 정진할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총무원은 중헌중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임명한 시몽스님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을 즉각 철회하라.
2. 총무원은 중헌중법에 의거 관음사 산중총회에서 의결 추대된 진명스님을 지체없이 임명하라.
3. 부처님오신날에 범종파적으로 거행하는 봉축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관음사 산중총회를 인정하여 제주불교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라
4. 지난 4월 25일 승려의 신분은 망각하고 난잡한 출판행각을 벌이고 불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총무원 총무국장(해경), 호법부 조사국장(서호), 시몽(전 불화사 주지), 도중(전 월라사 주지) 등 20여명의 총무원 스님들과 시몽스님 일행을 즉각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 불자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관음사 신도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관음사를 온몸으로 사수할 것임은 물론 전국불자연대를 결성하여 5월중에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조계종 비리 및 문제승려 등의 퇴출, 정화 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중헌 제 91조】

- ① 본사주지는 당해 관내총무를 통리하며 교구를 대표한다.
- ② 본사주지는 교구(본사)의 산중총회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은 중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임명한다.
- ③ 제2항의 산중총회에 관한 사항은 중법으로 정한다.

2007년 5월 2일

제주불교 교권수호와 청정승가 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

공동대책위원장

- 김신형 (관음사신도회 회장)
- 강원희 (관음사거사팀 회장)
- 하맹사 (제주불교신도회 대표)
- 문인중 (제주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 회장)
- 김천수 (제주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 고문)
- 오웅천 (제주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 초대회장)
- 고영진 (제주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 2대회장)
- 홍철중 (제주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 3대회장)
- 양영석 (제주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 4대회장)
- 양병규 (제주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 5대회장)
- 양정임 (관음사반야회 회장)
- 홍영선 (제주불교사회봉사회 회장)
- 양미경 (제주불교관음클럽 회장)
- 한연수 (제주불교마하야나합창단 단장)
- 조명선 (관음사해월회 회장)
- 권오남 (관음사청년회 회장)